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19. 9. 13 (금) 아침

사 회 담 당 자

목	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故(고) _____ 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개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559장/통305장)	다 함	개			
기	도		가	족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2:11-12	다 함	개	
추	모	의	말	씀	가장 중요한 질문	사 회	자
찬	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435장 통492장)	다 함	개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추억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대	표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9년도 추석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개			

추모의 말씀(Message)

풍성한 계절에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왔습니다. 부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왔으며, 두 분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1-12절 말씀을 보면)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빈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재밌는 오락거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일 자체로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믿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세상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흠으로 지어, 흠에서 살다,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이 인생은 금방 스러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19. 9. 13 (금) 아침

사 회 담 당 자

목	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故(故) _____ 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559장/통305장)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2:11-12	다	함	께							
추	모	의	말	씀	가	장	중	요	한	질	문	사	회	자
찬	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435장 통492장)	다	함	께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추억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대	표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9년도 추석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께									

추모의 말씀(Message)

풍성한 계절에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가수 최희준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왔습니다. 부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왔으며, 두 분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계속 오르다 보면 결국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생성되어 여러 동물로 발전하다가 유인원이 되었고 인간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11-12절 말씀을 보면)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빈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재밌는 오락거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성공이나 일 자체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빈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이 인생은 금방 스러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나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미리 천국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